



2025
중3-2
천재(노)

2025 중3-2 국어 천재(노) | 3(2) 문장의 짜임과 양상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 안긴문장과 이어진문장의 역할과 종류를 묻는 문제, 문장의 호응과 관련된 문제, 문장의 중의성을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겹문장과 홀문장을 구분하는 학습 이외에 문장 성분에 관한 학습, 호응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찾는 학습, 중의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다음 중 부속 성분이 포함된 문장이 아닌 것은?

- ① 현명이는 노무사가 되었다.
- ② 이 가게는 곧 문을 닫습니다.
- ③ 효진이는 엇그제 새로 산 카디건을 입었다.
- ④ 조용한 도서관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다.
- ⑤ 도희가 시킨 커피는 오렌지 향이 정말 강하다.

2. 다음 중 안긴문장이 하는 역할을 바르게 짚은 것은?

- ① 나는 한결이가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 서술어 역할
- ② 그가 소리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 부사어 역할
- ③ 농부들은 올해도 농사가 잘되기를 바랐다.
- 주어 역할
- ④ 그곳은 그림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 관형어 역할
- ⑤ 마지막 회에 주인공이 범인임이 밝혀지겠지?
- 목적어 역할

3. 다음 이어진문장을 이루는 홀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함박눈이 내리지만 날씨는 따뜻하다.
- 대조
- ② 그가 이곳으로 와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 의도
- ③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는 그녀와 외출할 것이다.
- 조건
- ④ 어제는 하늘이 맑았고 바람도 잠잠했다.
- 나열
- ⑤ 치악산 등반을 하려고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 목적

4.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은?

- ① 숲속에는 다람쥐와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
- ②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한다.
- ③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
- ④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만든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 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여야 한다.

5.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은?

- ① 민재는 준수와 영희를 도왔다.
- ② 형은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③ 미나는 어제 스페인에서 온 헤니를 만났다.
- ④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불길을 향해 돌진했다.
- ⑤ 영수는 울면서 떠나는 순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신유형

잘못된 문장을 적절하게 고치는 문제, 문장 성분을 구분하는 문제, 홑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문제, 중의성을 해결하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장의 종류와 짜임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맑소사, 눈이 많이 와서 문이 열리지 않아.

- ① 이 문장의 부속 성분은 총 1개이다.
- ② 이 문장에는 주어가 총 2개 쓰였다.
- ③ ‘맑소사’는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④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 ⑤ ‘와서’는 주로 문장에서 주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7. 다음 중 <보기>의 문장과 문장의 확장 방식이 다른 문장은?

<보기>
 명규는 환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 ① 혜지는 눈이 크다.
- ② 전화가 오면 지연이는 출발할 것이다.
- ③ 의정이는 승륙이가 만든 커피를 마셨다.
- ④ 연우가 소리도 없이 효경이의 뒤로 다가왔다.
- ⑤ 종범이는 자기가 어제 방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8. 다음 중 안긴문장의 역할이 다른 문장은?

- ① 손이 작은 그녀는 장갑을 샀다.
- ② 동생은 엄마가 사 온 모자를 썼다.
- ③ 나는 이모가 만든 빵을 맛있게 먹었다.
- ④ 주부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 종이비행기가 있다.

9. <보기>의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고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오늘 우리 반에서는 반장 선거에 나왔다.
 ㉡윤주는 만약 자신이 회장이 된다면 결코 즐거운 학급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겸이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성겸이의 꿈은 선거에 나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다. 성겸이는 이를 준비하는 첫 걸음으로 반장 선거에 나왔다고 했다.
 ㉣결국 윤주가 반장이 되고 성겸이는 부반장이다. ㉤친구들은 모두 환호와 손뼉을 치며 축하해 주었다.

- ① ㉠: ‘나왔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윤주와 성겸이가’를 추가한다.
- ② ㉡: ‘결코’와 ‘만들겠다’는 호응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로 고친다.
- ③ ㉢: ‘성겸이의 꿈은’과 ‘바랐다’는 호응하지 않으므로 ‘되는 것이었다’로 고친다.
- ④ ㉣: ‘윤주가 반장이 되고’와 ‘성겸이는 부반장이다’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성겸이는 부반장이 되었다’로 고친다.
- ⑤ ㉤: ‘환호’는 ‘치며’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환호와 손뼉을 지르며’로 고친다.

10. 다음 중 중의적 문장과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귀여운 그녀의 강아지를 보았다.
 → 그의 귀여운 강아지를 보았다.
- ② 문주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문주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가 많다.
- ③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았다.
 →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여동생을 만났다.
- ④ 건수는 은설이와 성현이의 노래를 들었다.
 → 건수는 은설이와 둘이서 성현이의 노래를 들었다.
- ⑤ 지호는 오늘 학교에 오신 선생님을 만났다.
 → 지호는 학교에 오늘 오신 선생님을 만났다.

11. 밑줄 친 문장 성분의 종류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 ① 선생님께서는 도서관에 가셨다. - 보어
- ② 소녀는 시골의 풍경을 좋아한다. - 목적어
- ③ 죽을 때까지 나는 너를 못 잊을 것이다. - 주어
- ④ 그러나 희망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다. - 독립어
- ⑤ 어머니. 빨간 원피스가 너에게 참 잘 어울린다.
- 부사어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보기>

- ㉠ 화단에 국화가 활짝 폈다.
- ㉡ 성민이가 열심히 춤을 춘다.
- ㉢ 그 일은 당연히 내가 할 것이다.
- ㉣ 동민이가 하늘에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 ㉤ 요즘 선생님들은 힘든 업무에 시달린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주성분이 아닌 것은?

- ① 강아지들이 잔디밭에서 뒹다.
- ② 와, 오랜만에 무지개가 떴다.
- ③ 과연 그 아이는 매우 똑똑하구나.
- ④ 내년에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 ⑤ 우리는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다.

14. <보기>의 문장을 분석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보기>

누나가 현 신발을 깨끗하게 빨았다.

- ① 문장에 사용된 주성분은 모두 3개이다.
- ② 5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③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온전한 성분이 사용되었다.
- ⑤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사용하지 않았다.

15. <보기>와 문장 성분의 구성이 같은 것은?

<보기>

동생의 모자가 정말 예쁘다.

- ① 하얀 눈이 펄펄 내린다.
- ② 귀여운 동생이 가방을 샀다.
- ③ 형이 나에게 용돈을 주었다.
- ④ 지우는 친구에게 책을 선물했다.
- ⑤ 민수는 학생회장이 이제 아니다.

16. <보기>에 제시된 문장에 대한 분석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그가 쓴 이야기가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 ①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난다.
- ② 문장 전체의 주어는 '그가' 이고, 서술어는 '주었다'이다.
- ③ 안긴문장은 모두 부사절로, 용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 ④ 안긴문장은 서술어의 어간에 어미 '-ㄴ,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절이다.
- ⑤ 전체 문장은 '부사어+주어+부사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17.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보기>

나는 코스모스가 좋다.

- ① 명사절
- ② 관형절
- ③ 인용절
- ④ 서술절
- ⑤ 부사절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는데 ‘현명이는(주어)’, ‘노무사가(보어)’, ‘되었다(서술어)’이므로 ①에는 부속 성분이 없다.

② ‘이(관형어)’, ‘곧(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 있다.

③ ‘엇그제(부사어)’, ‘새로(부사어)’, ‘산(관형어)’이므로 부속 성분이 있다.

④ ‘조용한(관형어)’, ‘도서관에서(부사어)’, ‘갑자기(부사어)’, ‘큰(관형어)’이므로 부속 성분이 있다.

⑤ ‘시킨(관형어)’, ‘오렌지(관형어)’, ‘정말(부사어)’이므로 부속 성분이 있다.

2. [정답] ②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이므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① ‘한결이가 학교에 간다고’는 인용절로 부사어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농사가 잘되기’는 명사절로 목적어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그림이 아름답게’는 부사절로 부사어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주인공이 범인임’은 명사절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정답] ②

‘-아서’의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원인의 의미 관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지만’의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대조의 의미 관계가 맞다.

③ ‘-면’의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조건의 의미 관계가 맞다.

④ ‘-고’의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열의 의미 관계가 맞다.

⑤ ‘-려고’의 연결 어미로 이어진 문장으로 목적의 의미 관계가 맞다.

4. [정답] ④

‘반드시’는 ‘-야 한다’와 어울리는 부사어로 호응이 적절하게 쓰였다.

① ‘숲속에는 다람쥐가 뛰고 새가 지저귀고 있었다.’가 맞는 문장으로, ‘다람쥐가’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② ‘우리는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자연에 지배당하기도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지배당하기도 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③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새로 시작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가 맞는 문장으로 ‘것은’이라는 주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하여야 한다.’가 맞는 문장으로 ‘운동을’이라는 목적어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빠져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다.

5. [정답] ③

미나가 만난 건 어제 스페인에서 온 헤니라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① 민재가 준수와 함께 영희를 도왔다는 의미와 민재가 준수와 영희 두 사람을 도왔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중의적 문장이다.

② 형은 나와 책 둘 중에 책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형은 내가 책을 좋아하는 만큼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중의적 문장이다.

④ 용감한 것이 그인지 그의 아버지인지 두 가지로 해석되므로 중의적 문장이다.

⑤ 우는 것이 영수인지 떠나는 순이인지 두 가지로 해석되므로 중의적 문장이다.

6. [정답] ⑤

‘와서’는 품사가 동사이므로 주로 문장에서 주체의 동작이나 움직임 나타내는 말이다.

① 이 문장의 부속 성분은 ‘많이(부사어)’ 1개이다.

② 이 문장에는 주어가 ‘눈이’, ‘문이’ 총 2개 쓰였다.

③ ‘밥소사’는 독립어이므로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아서’의 연결 어미를 사용해서 종속적으로 이

어진문장이므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7. [정답] ②

<보기>는 ‘환자가 오기’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따라서 ‘-면’의 연결 어미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 ②는 문장의 확장 방식이 <보기>와 다르다.

- ① ‘눈이 크다’라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 ③ ‘승록이가 만든’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④ ‘소리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⑤ ‘자기가 어제 방을 정리했다고’라는 인용절을 안은문장이다.

8. [정답] ④

- ④만 ‘비가 오기’라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 ① ‘손이 작은’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② ‘엄마가 사 온’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③ ‘이모가 만든’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 ⑤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는’이라는 관형절을 안은문장이다.

9. [정답] ⑤

㉠: ‘환호’는 ‘치며’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환호를 지르고 손뼉을 치며’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나머지 ①, ②, ③, ④는 모두 문장을 적절하게 고쳤다.

10. [정답] ③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았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친구인 것과 친구의 여동생인 것으로 해석되는 중의적 문장이므로 중의성을 해소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았다.’ 또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여동생을 보았다.’로 써야 한다. 나머지 ①, ②, ④, ⑤는 모두 중의성을 해소하도록 잘 고친 문장이다.

11. [정답] ⑤

- ‘너에게’는 ‘어울린다’를 꾸미는 부사어가 맞다.
- ① ‘선생님께서’는 주어이다.
- ② ‘시골의’는 관형어이다.
- ③ ‘너를’은 목적어이다.

④ ‘그러나’는 부사어이다.

12. [정답] ⑤

㉠ ‘힘든’은 뒤의 ‘업무’라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이다. 나머지 ①, ②, ③, ④는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부사어이다.

13. [정답] ③

주성분에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다. ③의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다.

- ① ‘강아지들이’는 주어이므로 주성분이다.
- ② ‘무지개가’는 주어이므로 주성분이다.
- ④ ‘중학생이’는 보어이므로 주성분이다.
- ⑤ ‘스파게티를’은 목적어이므로 주성분이다.

14. [정답] ③

용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인데 ‘깨끗하게’가 부사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문장에 사용된 주성분은 ‘누나가(주어)’, ‘신발을(목적어)’, ‘빨았다(서술어)’로 모두 3개이다.
- ② ‘누나가(주어)’, ‘헌(관형어)’, ‘신발을(목적어)’, ‘깨끗하게(부사어)’, ‘빨았다(서술어)’ 5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 ④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온전한 성분은 부속 성분인 관형어와 부사어인데 ‘헌(관형어)’, ‘깨끗하게(부사어)’가 사용되었다.
- ⑤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독립어인데 사용하지 않았다.

15. [정답] ①

<보기>는 ‘동생의(관형어)’, ‘모자가(주어)’, ‘정말(부사어)’, ‘예쁘다(서술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문장 성분의 구성이 같은 문장은 ① ‘하얀(관형어)’, ‘눈이(주어)’, ‘핑핑(부사어)’, ‘내린다(서술어)’이다.

- ② ‘귀여운(관형어)’, ‘동생이(주어)’, ‘가방을(목적어)’, ‘샀다(서술어)’이므로 <보기>와 같지 않다.
- ③ ‘형이(주어)’, ‘나에게(부사어)’, ‘용돈을(목적어)’, ‘주었다(서술어)’이므로 <보기>와 같지 않다.
- ④ ‘지우는(주어)’, ‘친구에게(부사어)’, ‘책을(목적어)’, ‘선물했다(서술어)’이므로 <보기>와 같지 않다.

다.

⑤ ‘민수는(주어)’, ‘학생회장이(보어)’, ‘이제(부사어)’, ‘아니다(서술어)’이므로 <보기>와 같지 않다.

16. 정답 ④

<보기>의 안긴문장은 서술어의 어간에 어미 ‘-ㄴ’을 붙여 만든 ‘그가 쓴’과, 어미 ‘-는’이 붙어서 만들어진 ‘꿈이 없는’이므로 적절하다.

① 전체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그가 쓴’, ‘꿈이 없는’, ‘이야기가 주었다’로 세 번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문장 전체의 주어는 ‘이야기가’이고, 서술어는 ‘주었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안긴문장은 ‘그가 쓴’은 관형절, ‘꿈이 없는’도 관형절로,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전체 문장은 ‘관형어+주어+관형어+부사어+목적어+서술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정답 ④

<보기>의 밑줄 친 문장은 서술절로 ‘나는’이라는 주어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①, ②, ③, ⑤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